

## 윤 리

정답	01 ①	02 ②	03 ①	04 ④	05 ②	06 ⑤	07 ①	08 ④	09 ③	10 ⑤
	11 ④	12 ⑤	13 ⑤	14 ③	15 ④	16 ①	17 ④	18 ③	19 ⑤	20 ②

### 해설

- 01** 불교의 연기설에 대한 설명이다. ① 연기성을 깨달아 만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 02** (가)는 자유 방임주의, (나)는 수정 자본주의 이론이다. ①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③ (가), (나) 모두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다. ⑤ 인간다운 삶과 사회 복지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나) 사상이다.
- 03** 루소의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루소는 사유 재산으로 발생된 불평등을 공약을 위해 사적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② 생산 수단의 공유화는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일체의 정치 조직의 철폐는 무정부주의의 주장이다. ③ 사유 재산권의 폐지는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④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라는 것은 간접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 04**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대한 설명이다. (A)는 집의, (B)는 의지, (C)는 지혜이다.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맹목적인 의지와 충동에서 비롯된 욕망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
- 05** 갑은 공자, 을은 맹자, 병은 법가 사상이다. 법가 사상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므로 법과 술으로써 조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① 유학의 주장이다. ③, ④ 순자에 의하면, 덕의 실현을 위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가 필요하다. ⑤ 공자, 맹자의 주장이다.
- 06** 롤스의 사상이다. 롤스에 의하면, ㉠, ㉡, ㉢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에 의해 이기심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타심이나 동정심 혹은 시기심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 ㉤ 원초적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 사회적 지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에 쌓여 있다.
- 07** 인간은 의식적으로 행동하며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를 반성하는 정신적·윤리적 존재라는 특징과 관련이 깊다.
- 08** 뜻을 성실하게 하는 공부는 일과 그의 근본이 되는 마음을 바로잡아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양명의 입장이다. ① 양명의 입장에서 이치는 마음에만 존재한다고 본다. ②, ③, ⑤ 성리학의 입장이다.

09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플라톤,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① 덕을 지식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② 개인의 가치 있는 삶은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갑, 을, 병 모두에게 공통된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⑤ 현실 속에 참된 존재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의 입장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반복을 통한 습관화를 통해 도덕적 덕이 형성된다.

10 갑은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을은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④ 을은 이데올로기가 현실을 개선하는 도구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은 가능하다. ⑤ 갑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11 갑은 칸트, 을은 스피노자, 병은 흄이다. ㄱ. 감정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칸트의 입장이다. 흄은 도덕적 가치는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ㄴ. 칸트는 이성이 도덕의 근원이자 동기라고 보는 반면, 흄은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ㄷ.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ㄹ. 칸트는, 인간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스피노자는 자유 의지를 부정한다.

12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ㄱ. 쾌락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밀의 입장이다. ㄴ.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한다. ㄷ.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이다. ㄹ.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13 실용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① 실용주의에 의하면, 불변하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도덕도 성장하고 진보하는 가치이다. ③ 실용주의는 귀납적 방법을 중시한다. ④ 회의주의의 입장이다. ⑤ 이론은 항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용주의의 입장이다.

14 제시문은 이이의 입장이다. ㄱ. 이황의 주장이다. ㄴ. 사단이 칠정의 일부라는 이이의 주장이다. ㄷ.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지 성이 아니다. ㄹ. 이이에 의하면, 사덕은 맑은 기운을 타고 리가 나타난 사단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15 갑은 스토아, 을은 에피쿠로스의 주장이다. ㄱ. 스토아 사상은 운명과 필연성에 순응할 것을 강조한다. ㄴ.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망의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허황된 욕망을 버리고 욕망을 최소화함으로써 쾌락을 증진시킬 것을 강조한다. ㄷ. 스토아 사상은 욕구의 극복과 억제, 에피쿠로스 사상은 고통이 없는 욕구를 추구한다.

16 제시문은 세계 윤리의 주장으로, 자기 종교에 대한 편협한 고집이 종교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찾아갈 것을 주장한다.

---

17 갑은 고자, 을은 정약용으로, 두 사상가는 본성에 4덕이 갖추어져 있다는 정통 유학의 성선설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8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감각으로 얻은 지식인 분별지는 만물을 차별시하므로 그것을 버려야 하며, 분별지를 버리면 모든 것을 하나로 여기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①, ⑤ 유학의 관점이다. ② 오감으로 터득한 진리는 분별지로서 지향해서는 안 된다. ④ 불교의 관점을 틀리게 서술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변의 실체란 없다[무아(無我)]고 본다.

19 갑은 홉스, 을은 헤겔, 병은 마르크스이다. ㉠ 국가를 필요악으로 보는 것은 자유주의의 관점으로, 헤겔과 마르크스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20 제시문의 ‘나와 같은 견해를 지닌 사상가’는 순자이며, 순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상가는 묵자이다. 순자는 이기적인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외적 규범으로서 예를 강조하는 반면, 묵자는 예를 사치로 파악하고 손해를 가져온다고 하여 예를 비판한다. 순자의 관점에서 묵자처럼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여 예를 비판하면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바로 잡기 위한 예를 무시하게 되므로 사회 혼란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① 순자에게 있어서 예는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한 행동을 규제하여 선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적 규범인데, ‘억압하는 규범’이라는 접근은 순자의 관점에서 다소 이탈되어 있다. ③, ④ 묵자는 예가 이익을 감소시키므로 무익하다고 본다. ⑤ 묵자는 사회적 이익의 증진을 추구한다.

